

광주·전남 학교 시설물 4곳중 3곳 '지진 무방비'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초·중·고 시설물 4개 중 3개는 지진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학교 내진설계 적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학교 건물 2만2503개 중 31%인 6821개동에만 내진설계가 적용됐다. 학교 건물 10개 중 3개만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고 나머지 7개는 지진에 방치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광주·전남은 이보다 더 심각했다. 광주는 내진설계 대상 건물 864개동 중 27%인 219곳에만 내진설계가 적용됐고, 나머지 645개동(73%)은 적용되지 않았다. 전남은 1750개동 중 76%인 1330곳이 내진설계가 빠졌다. 광주·전남 건물 4곳 중 3곳은 지진에 방치돼 있다는 의미다.

기상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규모 2 이상 지진은 1989~1992년에 65번 발생했는데 2011~2014년에 250번은

새정치연합 유기홍 의원 분석 결과

전국 학교 31%만 내진 설계 적용

내진비율 광주 27%, 전남 24% 불과

“복지예산에 밀려 내진보강 엄두 못내”

로 4배 늘었다. 상당한 피해를 낼 수 있는 규모 5 이상 대형 지진도 2000년 이후 세 차례 발생했다. 지진이 잦고 규모가 커지면서 내진 보강이 절실히 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7월14일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 시설물인 교사·체육관·체육시설·강당은 층수·면적에 상관없이 내진 보강을 하도록 강화했다.

문제는 재원 부족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시설 예산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범위에서 편성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돌봄 사업 등 복지예산 편성에 밀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012년 3개교 10억1000만원, 2013년 3개교 50억1000만원, 2014년 2개교 17억5000만원 등 최근 3년간 77억7000만원을 들여 8개 학교의 내진 보강을 하는데 그쳤다. 이 속도라고 한다면 광주지역 모든 학교의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마치려면 200년이 걸린다는 계산이다.

학교에서도 내진 보강을 꺼리고 있다. 광주는 내륙지역이어서 지진에 대한 공포를 느끼지 못한다. 내진보강 공사 기간이 2개월 이상 걸리면서 방학기간에 공사를 마칠 수 없어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기홍 의원은 “학생 안전에 직결되는 교육시설의 내진 보강은 매우 시급하다”며 “교육당국이 관련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계획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자신의 꿈·사랑 이야기해요”

완도 신지동초교 ‘톡톡 토론사랑방’ 개설

완도 신지동초등학교(교장 정소영)는 전남형 혁신학교인 무지개학교로, 지난 18일 학교 도서실에서 중간활동시간인 10시20분부터 11시10분까지 50분동안 ‘톡톡 토론사랑방’을 개설했다.

‘톡톡 토론사랑방’은 매달 첫 주는 꿈톡톡으로 1분 스피치를 통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둘째 주는 사랑톡톡으로 나와 친구 사랑, 자연사랑에 대해 이야기한다. 셋째 주는 지혜톡톡으로 독서·토론을 하고, 넷째 주는 자유톡톡으로 학생 스스로 주제를 정해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이날 지혜톡톡에는 ‘마사의 빵’을 이야기식 독서·토론으로 진행했다.

정소영교장은 “소규모학교이므로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 앞에서 발표할 기회가 없어 전교생이 모여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교사들 “교원성과급 가장 힘들다”

참교육연구소, 전국교사 1201명 설문

일선 학교의 교사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정책은 교원성과급제도와 교원평가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전국 유·초·중·고 교사 12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교사를 힘들게 하는 정부정책으로 교원성과급(36%)과 교원평가(30%)를 꼽았다.

참교육연구소는 “교사들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키는 성과급과 교원평가에 가장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학교에서 교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행정업무(35%)가 가장 많았고, 학생지도와 관리자의 부당 지시가 각각 26%·16%로 집계됐다. 학교에서 교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학생이 1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교장(16%)과 동료교사·교감(각 8%)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8%의 교사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했다.

교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학생과 마음이 통한다고 느낄 때(73%)와 수업을 잘 했다고 느낄 때(20%)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성인 책임 다짐 ... 광주 문정여고 ‘전통 성년례’

광주 문정여자고등학교(교장 장우남)는 지난 18일 학교 강당에서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통 성년례(계례)’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고3을 앞두고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며, 성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한 역할 수행을 다짐하고자 마련됐다. 성년례

는 우리나라 4대 전통생활의식인 관혼상제 가운데 첫 번째 통과례이며, 성인으로 사회적 인정을 받게 해주는 의식이다. 문정여고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시행했으며 올해로 5회째다. 류영서 양은 “성년례를 통해 한복의 아름다움과 국악의 멋을 새삼 느꼈다”며 “당초를 받음으로써 성인으로서 성숙한 태도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겠다. 특별하고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나주상고 세계시민교육 콘텐츠 공모전 ‘최우수’

목포 덕인중 우수상 ... 전남 5개교 공모전 입상

나주상고 등 전남지역 학교 5개교가 세계시민교육 콘텐츠 공모전에서 입상했다.

20일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재)에 따르면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과 교육부가 주관한 세계시민교육 콘텐츠 공모전에서 나주상고(교장 민병상)는 상호 존중·배려에 대한 스토리텔링 영상인 ‘안녕! 반가워!’를 제작해 전국 최우수상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목포덕인중(교장 서문옥)의 GCGB팀은 ‘우리 모두는 세계시민을 실천합니다’라는 영상을 출품, 세계시민교육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학생의 눈높이에 맞췄다는 평가를 받아 우수상을 받았다.

순천 동산초 이선우 군은 ‘중이학의 소원’으로 사진분야 우수상을, 전남예술고 이정와 양은 ‘미래를 향한 교육’으로 입선의 영예를 안았다. 고희여자중 김별 양은 ‘함께 걷는 세계시민’을 주제로 한 포스터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세계시민교육(GCE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콘텐츠 공모전은 18일부터 인천에서 열리는 ‘2015 세계교육포럼’에 대한 관심과 인식 확산을 위해 UCC, 사진, 포스터 분야에서 실시했다.

이번 공모전은 전남에서만 총 184편의 작품이 응모하는 등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이 중 15편이 전국대회에 출품됐다.

한편, 교육분야 최대의 국제회의인 ‘2015 세계교육포럼’이 지난 19일 오후 인천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포럼은 ‘교육을 통한 삶의 변화’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22일

까지 나흘간 진행됐다.

유네스코가 주최하는 세계교육포럼은 1990년 태국 초터엔, 2000년 세네갈 다카르에 이어 15년 만에 인천에서 개최됐다.

개회식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김용 세계은행 총재를 비롯한 국제기구 대표들, 150여 개국의 교육분야 장·차관 100여 명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포럼 부대행사로 마련된 상설부스를 활용해 민주·인권·평화를 주제로 하는 동영상과 교육자료를 전시하고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광주교육의 철학과 가치를 전 세계인에게 알리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장만재 전남도교육감이 지난 19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 옥외전시장에 마련된 세계교육포럼 콘텐츠 공모전 우수작품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이태리가구

명품소파

던롭침대

가구빌딩

홍스케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신상품 매주 입고** 광주 동구 장동 58-15 ☎ **1899-0240**